

화제의 책

세계경제 패권은 어디로... '하버드 미래경제학'

중국사회과학원은 최근 내놓은 '미국연구보고서 (2016)'에서 "미국 대선에 출마한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 모두 대중정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회과학원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중시 전략'의 창시자 중 한 명으로 평소 대중정책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여러 차례 인권 문제를 제기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에 대해서는 그의 미·중 관계 입장이 불확실하고 모호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즘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중국은 오랫동안 세계를 이끌었던 미국의 '리더 지리'를 위협하고 있다. 미·중 관계는 사실상 세계 경제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을 만한 파급력이 있어 향후 이 두 국가의 관계가 어떤 양상을 띠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력이 강해지고 국제적 지위 역시 높아지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이 주도적으로 세계의 대소사를 이끄는 경우가 심상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가져온 영향은 크다. 미국은 긴장하고 있고, 일본은 겉으로는 냉정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인도 역시 발 빠르게 중국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자 노력하고 있다. EU 또한 상당히 경계하는 눈치이지만 난민 문제와 경제위기로 발등에 불



이 떨어진 터라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하버드 미래경제학'에서는 이에 대한 하버드 교수진과 세계적 석학들의 강연과 토론을 소개하고, 이를

분석해 세계 구도의 변화를 객관적이고 다각적으로 전망한다.

중국인이면서 오랫동안 하버드대 비즈니스스쿨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천진은 서구적 시각과 동양인 특유의 아시아적 사상을 적절하게 융합해 이 책을 썼다. 그리고 세계적 석학들이 분석한 경제 이슈와 문제점, 미래 전망을 상세한 수치와 함께 제시했다. 눈여겨볼 부분은 과연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 각계 전문가와 석학들이 벌이는 격렬한 논쟁과 토론이다.

중국인인 천진은 서구적 시각과 동양인 특유의 아시아적 사상을 적절하게 융합해 이 책을 썼다. 그리고 세계적 석학들이 분석한 경제 이슈와 문제점, 미래 전망을 상세한 수치와 함께 제시했다. 눈여겨볼 부분은 과연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 각계 전문가와 석학들이 벌이는 격렬한 논쟁과 토론이다.

중국인인 천진은 서구적 시각과 동양인 특유의 아시아적 사상을 적절하게 융합해 이 책을 썼다. 그리고 세계적 석학들이 분석한 경제 이슈와 문제점, 미래 전망을 상세한 수치와 함께 제시했다. 눈여겨볼 부분은 과연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 각계 전문가와 석학들이 벌이는 격렬한 논쟁과 토론이다.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 이기고 누가 이길 것인가와 같은 승패 문제가 아니다. 천진은 서문에서 이 책의 집필 취지에 대해 갈등과 미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줄이며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할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현욱·알렉산더 립 옮김, 336쪽, 1만5000원, 예세

/이성주 기자

고창모양 전국국악경연대회 성황리 열려

(사)한국예술연구진흥원(이사장 서양수)과 (사)한국예술연구진흥원 고창군지부(지부장 최중호) 공동주관하고 고창군이 후원한 제7회 고창모양 전국국악경연대회가 지난 11일 고창동리국악당에서 개최됐다.

국악의 저변 확대와 전통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개최된 이번 대회는 박우정 고창군수, 이상호 고창군의회장, 서양수 한국예술연구진흥원 이사장, 최중호 한국예술연구진흥원 고창군지부장 등 3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대회는 일반부, 단체부로 나뉘어 판소리, 민요, 무용, 고법·타악·기악병창 등 4개 분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의 수준 높고 열띤 경연을 통해 대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을 국악의 향기에 흠뻑 취하게 만들었다.

한국예술연구진흥원 고창군지부 최중호 지부장은 "고창모양 전국국악경연대회를 통해 유능한 국악예술인 발굴을 통해 영예로운 등용의 기회를 마련하여 국악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국악은 우리 민족의 삶과 정서, 그리고 예술혼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며 "고창 모양 전국국악경연대회 재능 있고 훌륭한 국악인들을 많이 배출하는 전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예술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이소라·피아·지코 '지산 벨리록' 출연

일본 인기밴드 '세카이노 오와리'·이소라·록밴드 '피아'·지코 등이 7월 22~24일 경기 이천 지산리조트에서 열리는 '2016 지산 벨리록 뮤직앤드아트 페스티벌'(벨리록)에 가세한다. 10일 벨리록이 공개한 5차 라인업에 세카이노 오와리와 이소라, 피아, 지코를 비롯해 '한음과'와 '게이트폴라워즈' 멤버들이 새로 결성한 밴드 '에비티비(ABTB)', 인디 신의 아이돌 '논애플', R&B 신성 베이비론(Babylon), 밴드 '제8극장' '뉴티앤섬' 등 국내외 아티스트 9팀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레드 핫 칠리 페퍼스, 콜라 세이커, 스테레오 포닉스, 디스콜로저, 트래비스, 스웨이퍼서, 쿡카스텐, 트로이 시반, 혁오 등이 출연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개최 50여일을 앞두고 공식 페이스북에서 추첨생중계 보는 이벤트인 '벨보이 이벤트'를 주차별로 진행하는 등 관객 친화형 마케팅으로 관객들과 호흡하고 있다. 티켓은 예스24, 인터파크, 티켓링크, 옥션, 하나티켓, 네이버 N예약, 1300K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성주 기자

웹툰창작체험관, 청소년 대상 수강생 모집

전라북도도는 지역의 스토리와 캐릭터를 활용하여 도내 웹툰 산업을 육성하고, 웹툰 창작능력을 갖춘 작가를 양성하기 위해 웹툰창작체험관을 운영한다.

도 체험관은 2015년 8개 기관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올해 국비 4천만원을 지원받아 웹툰창작소와 웹툰창작체험관을 운영한다.

웹툰창작소는 3개 창작프로그램(일반인 2개, 청소년 1개)을 운영하며, 창작능력을 갖춘 잠재인력을 웹툰 작가로 양성한다.

웹툰창작체험관(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내)은 웹툰에 관심 있는 청소년과 일반인에게 상시 오픈하여 웹툰 제작과정소개 및 1일 제작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 웹툰 문화를 조성한다.

이와 관련 웹툰창작소는 창작프로그램 일반인 수강생 12명을 오는 13~27일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7월 1일부터 기초과정을 시작으로 스토리, 콘티, 작화, 편집의 단계 교육을 진행한다. 기초과정을 이수한 수강생은 1:1 멘토링을 기본으로 하는 심화과정에 진입하여 실전 웹툰 제작에 필요한 노하우를 배우게 된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교육과정은 7월 중 수강생 20명을 모집하여 방학 기간인 8월에 교육 할 계획이다. 접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jca.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혜은 기자



CBS 시네마, 16일 스포츠 실화 '불의 전차' 개봉

CBS 시네마는 세 번째 수입 작품으로 '불의 전차'를 선보인다.

전북CBS는 오는 16일 '불의 전차'가 메가박스 전주점과 송천점, 남원점 등에서 개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사회는 오는 13일 오후 4시 메가박스 전주점에서 열릴 예정이다.

영화는 1924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8회 하계올림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선교적 사명을 안고 달리는 에릭 리델과 유대인으로서 인종적 편견을 뛰어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해럴드 에이 브라함, 숙명의 라이벌인 두 선수는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생애 단 한 번인 레이스를 시작한다. 당대 영국 상류층 사이에 광배해 있던

유대인에 대한 반감과 편견에 맞서는 해럴드와 종교적 신념을 걸고 승리를 위해 피나는 노력을 거듭한 에릭을 통해 깊이 있는 감동을 선사한다.

이와 함께 올림픽과 각종 스포츠 경기의 테마송으로 빈번하게 회자되는 반켈리스의 'Chariots of Fire' 영화음악과 "끝까지 달리게 하는 힘은 마음에 있다."는 영화속 명대사는 진함을 남긴다.

'불의 전차'는 제34회 칸영화제 기독교 심사위원상에 빛나며 제54회 아카데미상 7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작품상, 각본상, 의상상, 작곡상 등 4개 부문을 수상했다.

이 작품은 1981년 작이지만 국내 스크린에서는 이번에 처음 개봉해 의미를 더한다. /정혜은 기자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무엇일까

'미래교실... 내일의 배움터' 출간

"생명과학과 인공지능(AI)의 새로운 시대에는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의 90%가, 아이가 40대가 됐을 때 쓸모없어질 확률이 크다."

베스트셀러 '사피엔스'를 쓴 유발 하라리의 말이다. 인류의 전 역사를 뛰어넘는 통찰로 해석한다는 평가를 받는 그는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기를 지금으로부터 30~40년 후쯤으로 내다보고 거의 모든 직업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몰아낼 것이며 새로운 직업도 인공지능이 차지할 것이라고 했다.

대부분 노동 현장에서 인간 대신 기계가 일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미국 듀크대학의 연구자인 캐시 데이비스는 '뉴욕타임스'에 "2011년 미국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 중 69%는, 그들이 대학을 졸업할 시점에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 우울한 예측은 최근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에서 알파고가 4승을 가져가며 가시화되는 듯 했고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이렇게 우리는 혁명에 가까울 만큼 극심한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특히 미래 사회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은 앞으로 그 누구도 경험한 적이 없을 정도로 낯이 눈부시게 변화하는 세계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성주 기자



이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은 무엇일까? 우리는 지금 오늘의 교육 현장을 진단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21세기에 어울리는 교육 방향을 모색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

일본의 비영리 교육단체 캔버스의 대표 이시도 나나코가 쓴 책 '미래교실:상상력과 창조력이 깨어나는 내일의 배움터'는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그 반대편에서 우리 모르게 일고 있는 교육의 거침없는 새 바람을 현장감 있게 소개한다. 김경인 옮김, 240쪽, 1만5000원, 청어람미디어 /이성주 기자

따라보며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2016년 6월 13일)



▶쥐띠

48년생: 혼자서 해결해 나가야만 하는 운이다.
60년생: 움직이는 만큼 결과는 좋다.
72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
84년생: 인덕은 있는 운이나 마무리를 소홀히 하면 좋은 결실을 맺기 어려우니 주의하라.



▶소띠

49년생: 문서운이 들어왔다.
61년생: 어려움이 생기지만 이성의 도움을 받아라.
73년생: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으나 큰 재물은 아니니 욕심은 삼가라.
85년생: 다른 사람의 일에 흔들리지 마라.



▶호랑이띠

50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62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
74년생: 다른 사람의 꼬임에 넘어갈 수 있는 운.
86년생: 하고자 하는 것마다 조용히 넘어가지 못하고 바쁘게 뛰어다닐 수 있는 운이다.



▶토끼띠

51년생: 재물에 탐욕이 지나치면 재앙이 발생.
63년생: 구설수로 인해 마음 고생할 수 있는 운.
75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진전이 있으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운이다.
87년생: 자신만의 이득을 생각한다면 사람을 잃게 될 운.



▶용띠

52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불화가 예상된다.
64년생: 태양이 밝게 떠오르는 상.
76년생: 부부 사이 또는 연인 사이에 불화가 생길 수 있는 운이니 양보가 필요하다.
88년생: 도와줄 사람을 만나게 되니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라.



▶뱀띠

53년생: 작은 일에 대한 성취는 가능하다.
65년생: 구설수와 시비가 따른다.
77년생: 처음에는 좋으나 후반에는 어려움이 따르니 매사 다음을 대비하는 자세로 임하라.
89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뒷사람의 도움을 받아라.



▶말띠

54년생: 주변의 상황이 어지러우니 큰 변화나 욕심은 금물.
66년생: 지나친 자신감은 실수를 불러오니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운이다.
78년생: 타인과의 화합에 좋은 날이다.
90년생: 욕심이 지나치면 실패가 따른다.



▶양띠

55년생: 지나간 과오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는 운.
67년생: 돈 잃고 사람 잃으니 조심하라.
79년생: 어려움이 있어도 뒷사람의 도움이 따르니 큰 허물없이 결실이 있을 것이다.
91년생: 동성보다는 이성의 조언을 따라라.



▶원숭이띠

56년생: 원행은 삼가라.
68년생: 대의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것이 좋으며 명분이 있어야 뒤따라 할 수 있다.
80년생: 다른 사람의 일에 흔들리지 마라.
9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박함이 많이 따른다.



▶닭띠

57년생: 지나친 자기주장으로 인해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때.
69년생: 큰 움직임은 좋지 않으니 주의하라.
81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운.
93년생: 일의 능률이 올라갈 운이다.



▶개띠

46년생: 경쟁자로 인해 신경을 많이 쓰거나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 마음을 편안히 가져라.
58년생: 감정에 치우치지 마라.
70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82년생: 처음에는 즐겁고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



▶돼지띠

47년생: 금전운이 좋지 못하다.
59년생: 타인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운.
71년생: 같은 화려해 보이는 듯하나 속은 허하다.
83년생: 다른 사람과의 의견충돌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기니 주의하라.